



◇7일 선문회가 개최한 '선수행 특강'에는 6백여 비구니스님들이 운집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 수행·전법 'UP!'

19일 회관 개관... 비구니 '총본산'으로
 선문회 7일 특강 개최, 6백여 수좌 운집

이 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조계종의 비구니 수좌 6백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행, 교육, 포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를 뒷받침할 전국비구니회관도 19일 개관한다. 바야흐로 '비구니 스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국비구니선원 수좌들의 모임인 선문회(회장 영은)는 개관을 앞둔 비구니회관에서 7일 선수행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6년 비구니회관 개관을 축하하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마

련된 이날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해 수석 부회장 진관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 등 비구니계 원로스님과 비구니 수좌 6백여명이 참석해 수행과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참가대중은 또 전국비구니회와 선문회 등 비구니 조직 활성화와 비구니회관을 '비구니 총본산'으로 육성하자고 결의했다. 전국비구니회 광우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적 역할을 증대하는 시발점"이라며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연원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했다. 선문회 회장 영은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수행을 중심으로 교육과 포교를 아울러 시대변화를 선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법(중앙승가대 총장)·해국(남국선원장)·명성(운문사 승가대학장)·해주(동대 교수) 스님의 '선수행'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봉영·여수령 기자

"종무실 오히려 확대해야"

법장 스님, 이장관에 폐지 반대 밝혀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문화정책국과 통합돼 문화정책실로 개편된다. 문화관광부 이장동 장관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 데 이어, 문광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조직 개편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2월6국 체제를 유지하되, 종무실을 문화정책국과 합쳐 문화정책실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

화정책실장이 문화, 예술 업무 외에 종무업무까지 함께 맡게 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종무실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장동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교인구가 3천5백만을 넘어선 지금 종무실은 오히려 역량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법장)도 8일 종무실의 종교청 확대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스님들 87.8%가 노후대책 위해 종단주도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보각 스님 박사학위 논문서

스님들의 87.8%가 노후에 개인적인 생활비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단이 주체가 돼 승려들에게 맞는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스님은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불교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각 사찰별 분담금에서 소속 승려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승려노후복지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앙승가대 동화사 파계사 해인사 운문사 범어사 법주사 송광사 승

려 316부, 일반인 141부 등 총 45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보각스님은 "노후문제를 걱정하는 스님이 69.4%에 이른 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후를 걱정하는 일반인이 45%인데 비해 30%나 높은 수치다.

스님은 "스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경제문제(40.4%)가 가장 높았고, 의료(30.5%) 주거문제(25.8%) 순이었다"며 "88.5%는 노후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은 이상적인 주거시설의 형태로 본사급 요양시설(69.3%), 사찰사당 요양시설(19.9%) 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2.6%)순으로 선호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광주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9월 1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3차 교육이 전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9월 1일부터 8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광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2-231-8062)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광주지사
 지사장 주용직 062-375-9986
- 모집 인원: 5명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6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꽃과 주지 해인 스님의 '연꽃 법문'

김재 청운사

연꽃 6천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성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기행 일시 및 인원

8월 16일, 23일

오전 7시~오후 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여행자 보험금 포함)
 *10명 이상 단체참가시 10% 할인

참가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 (동월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림)다→좌석배정-당일 오전 6시25분까지 조계사 앞 집결

91개 선원서 2,159명 옹맹정진 하안거 12일 해제

계미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12일 해인총림 해인사불보탑에 조계종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1개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각 총림 법장 법어 3편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11일 발표한 해제법어에서 "공부인에게 해제와 결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며, 큰방에 앉아있는 것과 산전을 다니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법문했다.

이번 하안거에서는 57곳의 비구

선원과 34곳의 비구니선원에서 모두 2,159명이 옹맹정진 해왔으며, 올해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된 회계사 국제선원, 논산 무상사,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에서도 6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정주 합동법률사무소
 개업인사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명: 일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501호
 TEL 02)3476-5704
 FAX 02)3476-5710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현대는 정보화시대. 정보에 뒤떨어진 사람은 생존할 수 없으며, 컴퓨터 활용이 이를 좌우한다.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제6회 승려 전산 교육'이 시행됐다.

조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모두 68명이 참가했다. 이들 참가자 가운데 반수 이상이 40대 중반 이상의 스님들이었고, 이 중에는 84세나 된 스

컴퓨터 배우는 노스님

님도 있었다. 40대 중반 이후는 사실상 컴퓨터를 하는 거리가 먼 세대다. 자판조차 모르는 참가자도 반수 이상이었다. 게다가 스님이라는 신분까

지 감안하면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승려 전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컴퓨터 학습이 '생존'과 맞물

려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시대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사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컴퓨터를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이번 전산교육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번 교육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전산화 교육은 1년에 한 번 뿐이다.

정보는 곧 '힘'이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차체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 기회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 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0일	제 2재 8월 17일	제 3재 8월 24일
	제 4재 9월 1일	제 5재 9월 8일	제 6재 9월 15일
	첫 번째 49재 - 8월 10일 용주사 주지 정락근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천도제사(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 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등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구본사
 선 은 사 도 솔 암 주 지 지 정 합 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